

양계자조금편

## 양계자조금 이대로는 안된다



김영민  
한국농어민신문  
양계담당 기자

**육**계와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농가거출을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돼지, 한우, 낙농 등에 비해 자조금 출범 속도가 늦었지만 농가들과 관련 업계는 의무자조금 출범은 양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요건이라는 데 이의가 없었다. 농가들은 스스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거출금액을 결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양계산업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자조금이 출범하자 농가 및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4대 축종 막등이로 탄생

육계와 산란계 자조금은 지난 6월 농가거출을 시작으로 돼지, 한우, 낙농에 이어 축산업계에서 4번째로 의무자조금을 출범시켰다.

육계는 2004년 공동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5년 선거를 통해 대의원 135명을 선출하고 그해 10월 거출금액 등을 정하는 1차 대의원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2006년 4월 2차 대의원회를 열어 거출금액을 수당 육계는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종계 50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관리위원 선출이 부결되면서 이때부터 계열업체와 농가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대의원들이 양계협회·계육협회·농협 등 축산단체에서 선정한 관리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맞서는가 하면 정족수 미달로 이후 2번에 걸친 대의원회에서도 관리위원을 선출하지 못

하게 된다.

결국 서면결의라는 방법을 통해 관리위원과 감사위촉을 통과시켜 지난 4월 관리위원회를 열고 관리위원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올해 자조금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을 선출하고도 꼬박 4년이 지난 후에야 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로부터 2개월만에 농가거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육계가 오랜 산고 끝에 자조금을 출범 시킨 것과는 달리 산란계자조금 출범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대의원 77명을 선출했다. 이어 지난 4월 대의원회를 열어 노계 수당 100원씩 거출금액 확정, 관리위원 및 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거출을 시작기로 했다. 육계가 4년을 끌고 거출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대의원 선거 후 4개월 만에 거출이 이뤄진 것이다.

### 농가 스스로가 산업의 주체로 나서야

전문가들은 자조금 납부의 주체가 농가이고 거출과 거출금액의 결정도 농가들 스스로가 결정한 만큼 양계자조금 성공은 전적으로 농가들에게 달렸다고 지적한다. 농가들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육계농가들이 계열업체에 종속돼 있다는 농가들의 의식구조를 자조금을 통해 깰 수 있는 장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결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같은 농가들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개최된 육계자조금 대의원회에서 한 농가는 “우리 지역의 농가는 100%



계열사 소속인데 농가들은 계열사 품팔이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렇다 보니 ‘닭값 잘 받으려고 계열업체 광고해 주는 식’의 자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자조금을 출범시키려는 대의원들의 힘을 빠지게 했다.

자조금이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자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도 이러한 품목에 대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해지는 말이다. 아직도 자조금의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가들의 준비되지 않은 의식과 자조금 거출의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와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

리하게 출범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조금은 농가들의 목소리를 산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은 돈들은 그동안 양계산업에서 취약한 조사나 연구, 소비홍보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우와 양돈, 낙농의 경우 자조금을 통해 소비홍보 외에 다양한 연구사업과 외부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자료를 수집해 정책제안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계열업체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농가들이 얘기하는 종속된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면서 “계열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소비홍보가 있다면 자조금으

로는 조사나 연구사업에 집중하면 되고 이러한 결정도 농가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자조금 동참에 미온적인 농가들의 태도를 꼬집은 바 있다.

양계자조금은 양계농가들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농가들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지를 소비자나 관련 단체, 나아가 정부에 보여주고 이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조(自助)란 말 자체가 ‘스스로 저를 도움’이란 말로 농가들 스스로가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농가들을 돕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농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수익이 일정 줄어든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 종자돈이 더 큰 수익과 경쟁력을 가져다준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